

구세주의 오심

세례요한과 예수님 탄생	1장
	2장

구세주의 행동

사역 준비	3장	
갈릴리 순회사역	4장	갈릴리 사역
기적과 가르침	5장	
제자 선택 후 가르침과 기적	6장	
제자파송, 베드로의 신앙고백	7장	
변화상 변화	8장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기적	9장	

구세주의 말씀

첫 몇 주간	10장	예루살렘으로
70인 파송, 선한사마리아인	11장	
바리새인 경계, 부자비유	12장	
예수님의 슬픔	13장	
최후의 몇 일간	14장	
갈릴리사역, 여인 고침	15장	
사마리아, 문둥병자고침, 가르침	16장	
여리고, 소경 고침, 삭개오 가르침	17장	
예루살렘 입성, 예수의 애가	18장	
	19장	예루살렘 입성

구세주의 나아가심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20장
	21장
수난이야기	22장
	23장
부활, 약속, 승천	24장

누가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17 4번째 I

누가복음 11-13장

눅 4:18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눅 7:22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눅 6:20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 ② 가난한 자들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바로 그 해, 과세를 목적으로 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2:1). 빈곤과 과도한 세금으로 수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부터 AD 65년까지 7차례의 대중 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일어난 메시아와 예언자들, 어수선한 틈을 타 출몰하는

도적 집단들로 유대 사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수색과 군사 작전을 펼치며 폭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감시, 진압하곤 했습니다.

마을을 파괴하고 살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았고,

폭동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해 공공 도로를 따라

본보기로 전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이 중산층이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상류층과 하류층, 단 2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 중심 사회였으며 인구 90% 이상이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5%의 부자들이 국가 부의 65%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갈릴리는 자원이 풍부하여 팔레스타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농경 지대이자 물고기 수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토지 대부분은 이방인 지주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부유한 상인들, 사두개인들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속했는데 역시나 가난한 암하레츠(땅의 사람들)가 사는 시골 한가운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중 부유 계층에서 세금 징수원을 뽑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금 도급 업자였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입니다. 로마로부터 선정된 세금 도급업자들은 로마 입찰에 참여하여 담당 지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최고가를 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찰가로 써낸 세금 할당량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완력으로 부정 이득을 취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로마가 징수하는 시민세와 유대 율법이 정한 종교세 양쪽을 납부하느라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 1년 수입의 30-60%가 세금징수원과 채권자들에 의해 징수되었습니다. 토지세와(수확의 1/4) 인두세(14세 이상 남자, 12세 이상 여자), 여기에 종자 비용, 소작료까지 내고 나면 1/10만이 농민에게 남겨졌습니다. 유대 율법이 정한 종교적 십일조와 세금은 종류만 대략 24종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맨발로 다녀야 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 부인의 발을 보호한다며 집에서 성전까지 양탄자를 깔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절기 행사 때 쓰는 종려나무 가지를 황금 장식으로 묶었고, 칠칠절에 드리는 첫 열매를 황금 대접에 담기도 했습니다. 성전 특별 예술가들은 하루에 약 37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 날 음식과 300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 가까이에서 계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 말구유였습니다(2:7).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양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2:15). 가난하고 빈곤한 이들이 항상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를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애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4:18)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말씀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였습니다(7:22). 팔복의 말씀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6:20)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빈부 갈등이 일회성 기적이나 구제, 혁명을 통해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4:3)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 주셨습니다(22:19).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새로운 영과 비전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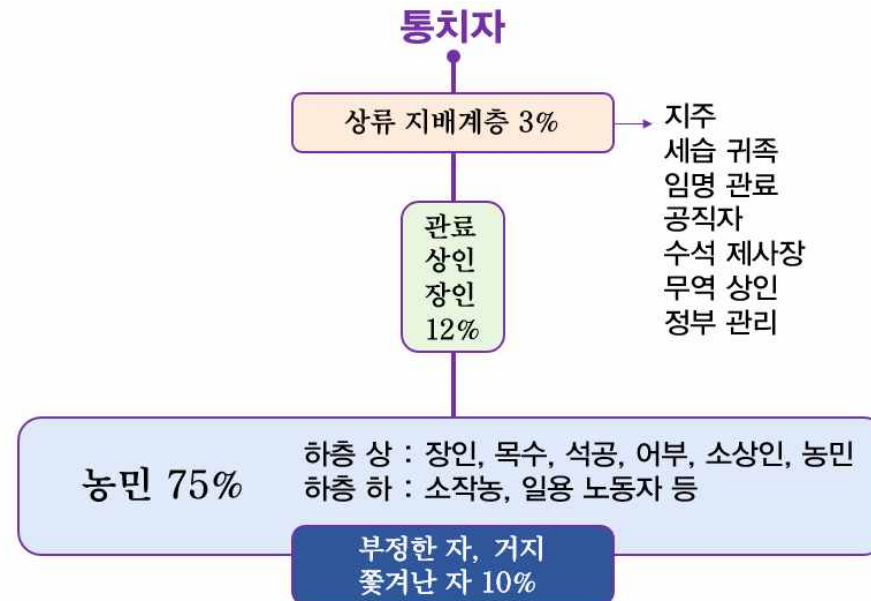
성찬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삶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을 둡니다. 손에 들린 떡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출16:18)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넉넉히 가진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비축하고 쌓아만 놓는 부유함은 어리석은 것이며(12:13-21).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부유함은 오히려 화에 가깝습니다(6:24-25).
 잔치를 베풀 때 도로 갚을 만한 이웃보다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14:14), 영생을 묻는 부자 의회원에게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18:22).”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삶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19:8).”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 복음서들의 신학(한들출판사),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복있는 사람)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성서유니온 LABC(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두란노 How 주석, IVP BST (Bible Speaks Today)